



畫面落書文字 등으로 이루어 보아 아마 도慶北漆谷郡에 있는 松林寺가 아니었던가 생각된다.  
즉 畫面에 남아 있는 落書들을 대장추려 보면 南方增長天王像에  
칠국 소은이  
大邱 東下面臺封

李炳俊 丙申四月十一日過次大邱河東月川里居 楊鎬輝  
河陽 瓦村面陶溪居 孫晉和 甲辰八月二十一日 過次  
北方護世多聞天王에  
大邱居 崔兵刑大監乙未七月初八日下人金春吉過次  
大邱南門內居 徐明國

등이 보이고 있어서 以上 落書에 나타난 巡禮者들의 住所가 거의 大邱地區가 大部分이었고 特히 「칠국 소은이」란 문구로 보아 地理的으로 前記한 松林寺說을 뒷받침해주는 것이라고 하겠다.

이 두쪽의 幀畫는 李朝作品으로서는 비교적 活潑한 筆力을 보이고 있으며 또 天王像으로서는 그 크기로나 凡俗하지 않은 솜씨로 보나 이제까지 遺存되어 온 李朝時代의 此種天王像中에서는 佳作에 屬한다고 할 수밖에 없다. 만약 이것이 松林寺에서 흘러나온 遺物임이 틀림 없다면 오랜 廢寺에서 壬亂後에 復興된 것으로 알려진 松林寺의 盛衰로 보아서 銘記中의 「嘉는 嘉慶일 것으로서 따라서 一七九六—一八二〇 사이의 遺作으로 볼 수 있을 것 같다.

이 그림이 大英博物館에 收藏된 것은 一九二〇年이었으나 所藏由來는 밝히지 못했으며 大英博物館當局이 보고 있는 十六世紀中葉說은 다시檢討되어야만 될상 신다.

### 「新羅 文武王陵 斷碑」追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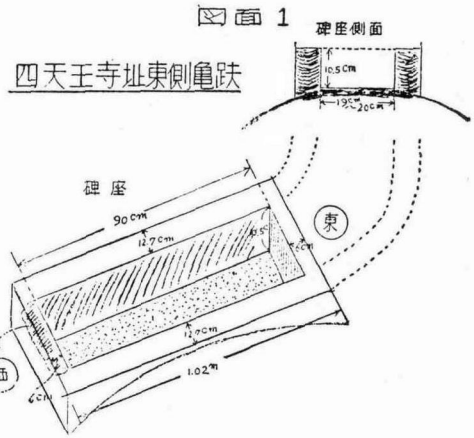
洪 思 俊

지난 「美術資料」第三輯에 筆者가 文武王陵 斷碑가 發見된 經緯와 海東金石苑의 碑文을 對照한 것 등을 밝혀 보았다. 그後 慶州博物館所藏의 大坂氏發見의 文武王陵碑片과 靑丘學叢第三〇號 藤田氏가 海東金石苑을 본 記錄等을 追記하려 했으나 印刷上 不得已한 事情에서 補充을 보지 못하였던 바 今次 다시 四天王寺址前方(南)에 東西로(兩龜背中心相距約三三m) 二個 龜跌中 어느 것이 文武王陵碑에 該當될가 調査한 바 西側龜跌碑座임을 알게 되어 兼해서 아래에 그 關係를 알려 두자 한다.

(1) 慶州博物館所藏品에 文武王陵碑片(二字)을 大坂金太郎氏가 在慶時 四天王寺址에서 發見(拾得日은 단지 六·一·一로 된) 한 것이 있는 ①데 同碑文을 보면 石質 石色(淡朱) 등이 去年에 發見된 斷碑와 同一한 것을 알겠다. 이 碑片의 形態는 不等邊三角形(厚 一cm)인데 一練磨面에는 亦是 井間內(縱橫三cm 內外로 斷碑面 井間과 同)에 두字가 左右兩行에는 基字로 解讀할 수 있는 『奎』字이고 左行에는 分明히 『書』字가 있다. 이 碑片을 再發見된 斷碑에 接續하여 본즉 同碑前面 第二行 第三行兩行末의 것임을 確認할 수 있다. 즉 圖面二로써 兩處破損面을 보아서도 알 수 있다. 다시 二字의 補充이 있음을 多幸히 여기는 同時에 文武王陵 斷碑가 本是 四天王寺에 建立되었던 것도 알려준다.



(2) 七月十八·九兩日에 걸쳐서 排盤里所在 四天王寺址前方에 있는 東西兩龜跌를 調査한 바 아래와 같다.  
東龜跌碑座穴(圖面一)  
長九〇cm 幅一九—二〇cm



深一〇・五cm

西龜趺碑座穴(圖面二)

長九〇cm 幅二〇cm 深二三・五cm(一段孔)로一段深一四cm 其下深九・五cm)

그리고 斷碑의 下部 碑座孔에 드러났수었던 楯(柄)은 幅一八・七cm 高一三cm 長九〇cm(斷碑幅이 九四cm인데 下部의 一方이 缺失되었으나 左側이 右側도 一cm로 보고 四cm除이 어서이 斷碑에 該當되는 碑座는 西側龜趺의 것이리라

라고 보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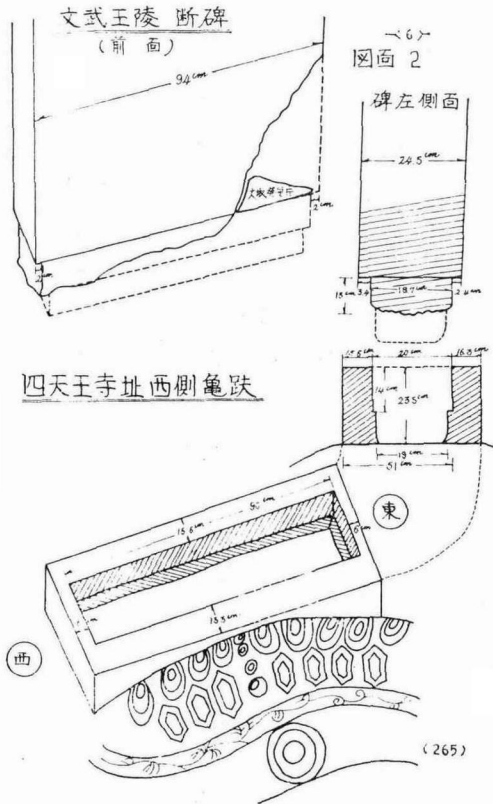
西龜趺碑穴에 二段層穴이 있음은 보아서 陵碑下部楯(柄)도 碑石을 堅固하게 建立하기 爲하여 二段의 楯(柄)으로 되었을지도 모르며 斷碑楯(柄)現狀을 보면 높이 一三cm가 最高로 凹凸面으로 破損하여졌다(圖面一)

지난 七月初旬 慶州市의 好意로 兩龜趺附近을 과서 龜趺臺石까지 드러나 있었는데 掘地時에 出土된것을 보면 東側에서는 淡朱色 大小石片 數點과 瓦磚類若干이 龜趺田에 있다. 이 淡朱色石片이 慶博所藏의 王陵碑一部일가 或은 八・一五 解放에 既히 四天王寺址에서 發見했다는 螭首(慶博所藏)의 一部일가 對照한바 螭首石質과 石色이 相合됨을 알게 되어 따라서 이 螭首片은 東龜趺에 있던 碑石 螭首가 됨을 알게 된다. 西龜趺周圍를 과변 附近에서는 碑閣礎石으로 使用했던 圓座形礎石(直徑四三C)二個(一個 14存)와 其他 地臺石에 썼던 石材數個가 있었고 龜趺臺石을 보니 長(南北)二・五m 廣一・九四의 平面에 龜趺(높이 臺上에서

七二〇)가 놓여있다.

지금까지 論述한 것은 大坂氏發見碑片이 文武王陵 斷碑의 一部임을言及한 것과 現四天王寺址 南方 西側龜趺가 斷碑龜趺임을 알렸다. 다음에 萬一前記 三者關係가 틀림없다하면 文武王陵碑가 四天王寺에 建立된緣由가 궁금하다. 文武王은 遺言에 依해서 火葬을하여 陵이 없고 다만 大王岩에 散骨한 記事만이 있을뿐이다. 그럼에도 不拘하고 王陵碑가 四天王寺址에서 發見됨은 무슨 까닭이 있으리라 본다. 或은 四天王寺址附近에서 火葬하였음에서 그 附近에 義陵을 만들었거나 또는 四天王寺를 文武王이 創建한 寺刹임에서 陵碑만을 建立하였는지 앞으로 研究할 問題로서 지금에 解明못함은 遺憾으로 생각한다.

끝으로 美術資料第三輯 拙文에서 碑文後面의 末行에서 四行 赤鳥는 赤鳥 表崇은 表崇. 다음行에 貴道賊身은 貴道賤身임을 訂正하여 두며 또는 靑丘學叢第三〇號에 藤田亮策氏가 文武王陵碑文(海東金石苑)의 四石을 全碑前後面의 上下로본 記事를 이 곳에 적는다.



附記

一、慶州古蹟要覽(昭和十一年五月調)金石條에 名稱 文武王陵碑

所在 總督府博物館藏

備考 四天王寺境內에 龜趺가 있고 碑身斷片大正四秋發見

二、朝鮮金石總覽上卷二七頁 四天王寺址에서 □遠雅志□□蘭而□□□

以上에서 (一)의 碑片의 文字가 (二)에 記錄한 것일지 或은 別個 것일지 尙  
으로 밝혀지기를 바라지 않는다. 다만 이 곳에 添言된 것은 圖面一에 보  
다시 龜趺碑座側이 缺失한 것과 古蹟圖譜四卷四七三頁 下寫眞에 龜趺  
의 碑座西側이 缺損된 것이 同一한 四天王寺址前方東側의 龜趺이며 이 龜  
趺附近에서 發見된 諸鹿央雄氏藏 碑片(全圖譜四七三頁上段寫眞 朝鮮金  
石總覽上卷二七頁碑文 參照)이 文武王陵 斷碑註③의 字劃. 字形. 井間  
과 相異한 點에서 이 碑片은 上述한 바 文武王陵碑의 推定 龜趺(西側)와  
는 何等의 關聯性이 없다고 斷言하고 싶다. 그리하여 上記한 金石總覽所  
藏의 「遠雅志」□蘭而□等은 金石總覽에 記載된 題目 그대로 四天王寺碑文  
의 一部인을 알게 되며 慶州博物館에 所藏된 解放後 發見 螭首 또한 이 碑  
片과 一脈相通함을 알겠다.

註

① 大坂氏發見 碑片裏面에는 다음과 같이 墨書된 三行의 記錄이 있다  
「四天王寺址」文武王碑片」六·一一」

② 解放後 四天王寺址附近民家에서 發見된 碑螭首破片은 (徐洙龍氏  
로부터 大邱搬出直前에) 慶博에 搬入한 것은 一九六〇年五月一〇日  
이라 한다. 本亦 螭首는 太宗武烈王碑螭首와 같이 碑上部頂點을 中  
心에서 左右에 各三頭龍을 肉刻하였는 듯하다. 殘存 螭首는 1/3이  
(碑幅으로) 남아있고 三頭龍에서 一頭가 完全脫落하였다. 높이 龍  
頭上下) 七二·五C 幅(龍頭部)三八C (龍頂部)二八C 厚(龍頭殘  
部)一六C (龍頂部)二八C

③ 文武王陵斷碑文字는 劃이 가늘고 字形이 上下로 길고 井間이 三  
cm인데 四天王寺碑片은 劃이 굵고 字形이 正方에 가까울고 井間  
이 四方三·五cm이다(圖譜에서)

百濟石製小像斷片(其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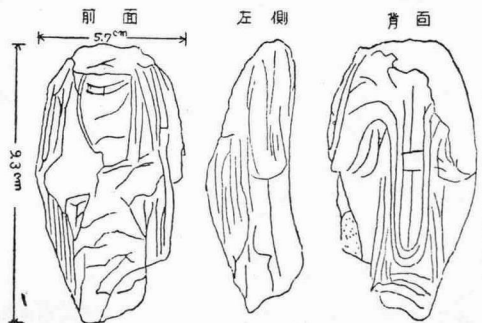
黃 壽 永

(3) 蠟石菩薩立像(圖面1)片……一九四七年十二月九日 扶餘邑舊衙里 郵  
遞局址에서 拾得된 高九·三cm에 不過한 小像。로서 頭部와 下端部가 없  
으며 兩手 또한 缺失되였다. 灰白色을 보이는 軟質石材를 使用하였는 데  
刀痕이 刻明하며 當代의 樣式을 보이고 있다. 兩肩에 걸쳐서 垂下된 天  
衣는 身側을 따라 褶皺을 나타냈고 兩肩위에는 冠帶가 느리워졌다. 背  
에는 둥근 頸飾이 있고 胸部에는 掩腋衣가 表示되어 있다. 背面은 더욱  
保存이 良好하며 裳帶가 허리를 두르고 그左右로는 屈曲된 兩腕이 있  
으며 天衣는 길게 V字形으로 垂下되어 있는 것도 注目되였다. 이 같은 類  
例로서는 일찍기 扶餘 東南里寺址에서도 出土된 바 있으며(昭和一三古蹟  
調査報告書·陳列品圖鑑一四輯) 또

日本에 傳來하는 金銅菩薩像(辛亥  
銘菩薩立像——小林剛·御物金銅佛  
像)等을 指摘할 수 있어 비록 破片  
이나 貴重한 資料가 될만하다(扶餘  
博物館藏)

(4) 滑石菩薩立像(圖面2)片……日  
帝末期의 所謂 神宮造營工事に 따  
라서 實施된 遺蹟調査에서

扶餘錦城山 朝王寺西南麗(推定 天  
王寺址)에서 藤澤一夫氏에 의하여  
收拾된 것인데 此種 石像中 가장 巨  
軀의 優品이라고 할 수 있다. 腹部  
以下の 白色의 斷片인 바 刀法이 勁



(圖面 1)

1947. 12.9 扶餘邑舊衙里郵遞局址出土